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손선지 베드로

(1819-1866)



충청도 임천(林川)의 ‘괴인돌’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손선지는 어린 시절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성품이 온순하고 착해 16세 때 정 사스당 야고보 신부에게 회장으로 임명되었고, 순교할 때까지 회장직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병인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전주 지역의 교우촌인 대성동 신리에 살면서 자신의 집을 공소로 내어주고 있었다. 그러다 12월 5일,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정문호, 한재권 등과 함께 전주 감영 후면옥에 갇혔다. 신문을 받다가 회장 신분이 밝혀진 그는 관장에게 공소를 거쳐 간 서양 신부들의 이름과 교회 서적의 출처를 대라고 강요당하며 매우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체포된 교우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마침내 12월 13일, 손선지는 5명의 교우와 함께 숲정사에서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47세였다.

성화_손수득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피어라, 신앙의 꽃)」 ©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2025

연중 제2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62,1-5

화답송

시편 96(95),1-2 7.2 8-3.7-8 9와 10 7 11 (◎3 참조)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주님께 드러라, 모든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러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을. ◎

-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 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

제2독서

1코린 12,4-11

복음 환호송

2테살 2,14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복음

요한 2,1-11

영성체송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



나타나엘 기념 성당



카나의 혼인 잔치 성당

이스라엘을 순례하다 보면 포도주 먹을 일이 많습니다. 북쪽의 골란 고원부터 남쪽의 유다 광야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포도밭이 자리해 있어, 포도가 가나안의 일곱 토산물(신명 8,8)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 2,1-11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표징도 포도주와 관련됩니다. 갈릴래아 지방 카나에서 혼인 잔치를 연 신랑신부를 위해 포도주로 첫 기적을 행하신 일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셨습니다. 잔칫집에 술이 떨어져 당황하였을 혼주들을 걱정하신 말씀이었습니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답하시지만, 성모님은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이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혼인 서약을 하는 부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에서 의문을 품게 하는 점은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부르신 호칭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교부들은 창세 3,15에 근거해 이를 풀이하였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은 너(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라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성모님이 이 구절에 나오는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펍 설득력 있는 해석이지요?

카나의 혼인 잔치 성당은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관리하는

데요, 이 수도회에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당시 혼인 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의 제자 바르톨로메오 곧 ‘나타나엘’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 21,2에서 나타나엘은 “카나 출신”으로 소개됩니다. 지금도 카나에 가면 나타나엘을 기념하는 성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2,1-11에 따르면, 혼인 잔치에 예수님은 물론 성모님과 제자들이 모두 초대받았다고 하지요. 이들 모두가 혼주 가족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카나 출신 사도인 나타나엘을 신랑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요한 15,5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이 포도나무 안에 머물지 않는 가지는 말라서 불태워지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나무를 가꾸신 하느님이 영광스럽게 되실 거라고 하십니다(6,8절). 한편, 예부터 포도주는 하느님께서 내리신 복으로 여겨졌습니다(신명 7,13; 시편 104,15).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매개로 행하신 첫 표징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을 표상한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요한 복음에는 공관 복음에서와 달리 성찬례 제정 곧 최후의 만찬 대목이 빠져 있는데요,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이를 대신 채워주는 구실을 합니다. 요한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빵에 비유하신 담론과 함께 말입니다.

과음으로 방탕해지지 않고(에페 5,18) 포도주를 즐기는 삶은 주님께서 주신 복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찬례에서 주님의 성혈을 받아 모시며 당신 자신을 음료로 내어 주신 그 신비를 맞볼 수 있습니다. 🍷

현대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의 시작

강한수 가롤로 신부 통합사목국장

가톨릭신자로서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묻는 일은 마치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마주해야 하는 물음이기에는, 성령의 도움을 청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은 지난 2천 년 동안 교회가 끊임없이 해온 질문이고, 그때마다 교회는 당시 처했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해석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교회의 자기 인식들은 오늘의 교회가 자신을 성찰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정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20세기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금 묻고 초대교회부터 함께 걸어온 길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 10월 11일, 성 요한 23세 교황의 개막 선언으로 제1회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교황직을 수행했던 전임 교황 비오 12세의 뒤를 이어 77세의 고령이던 베네치아 대교구장 안젤로 롬칼리 추기경이 1958년 10월 28일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과도기적 교황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한 23세 교황은 즉위 3개월 만인 1959년 1월 25일, 로마 추기경단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잇는 새 공의회를 개최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960년 6월 5일, 자의 교서 「하느님의 높으신 뜻」을 반포해 공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침내 1962년 공의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성 요한 23세는 개막 연설에서 현대 세계 안에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내적 외적으로 쇄신되는 것이 공의회의 목적임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현대화’와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현대화란 ‘현대 세계에 상응하여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아조르나멘토’(aggiornamento)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아조르나멘토에서 조르노(giorno)가 ‘날’이란 뜻이므로 영어로는 ‘업데이팅’(updat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교회라는 구원의 장치가 과거의 지나간 프로그램으로 운용되지 않고, 현대 세계라는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한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아조르나멘토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상징적 개념이 되었습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
1962년 10월 11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공의회는 성 요한 23세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교황은 1963년 6월 3일 제1회기를 마치고 선종하였습니다. 이후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선출되어 공의회를 제4회기까지 이끌었으며 1965년 12월 8일에 폐막하였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발표된 문헌은 4개의 헌장과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우리가 지금 다시 묻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성찰은 「교회 헌장」에 담겨 있습니다. ☸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테살 5,16-18)

위암 수술을 위해 입원한 50대 여성 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창가 쪽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에게 다가가며 나는 농담부터 건넸다. “얼마나 아팠길래 이렇게 살이 쏙 빠지셨을까? 다이어트 한번 제대로 하셨네요.” 이전 본당에서 복사단 자모회 어머니로 만나 친분이 있던 환자였기에, 예전처럼 편하게 다가선 것이다. “예, 생각보다 많이 아파서 힘들었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기운이 하나도 없는 환자의 목소리에 나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만 앞서 병색이 완전한 환자의 얼굴을 바로 읽지 못하고 시답잖은 이야기로 방문을 시작하다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병실을 둘러보니 환자의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웃고 있었다. 어릴 적 복사를 서던 어린이들이 몰라볼 정도로 부쩍 자라 있었다. 그들과도 간단히 인사를 나눈 다음,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환자는 위암을 늦게 발견해 위를 거의 다 잘라내야 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신부님, 사람만큼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 없는 거 같아요. 위를 조금만 남겨놔도 위와 연결된 십이지장이 차차 늘어나서 위치가 틀려요. 식사량도 줄어서 자연스레 살도 빠질 테니 오히려 잘 되었어요.” 환자가 험스해진 얼굴로 밝게 웃어 보이니 언제나 여유 있어 보이던 예전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나도 예전에 환자와 그 자녀들과 함께 본당에서 지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한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방문을 마치면서 나는 환자의 자녀들에게 하느님께서

알아서 다 기도로 들어주실 테니 그동안 엄마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여기서 하라고 일러주었다. 첫째가 잠시 생각하더니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아픈 줄도 모르고 너무 밖으로 놀러만 다녔어.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 차분하게 건넨 첫째의 말에 환자가 미소로 화답하자 둘째가 이어받았다. “엄마, 나도 잘못했어. 앞으로는 엄마한테 화나는 일 있어도 대답 잘할 테니까 수술 잘 받아?” 하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막내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 죽으면 안 돼.” 환자의 자녀들은 곧 일제히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마. 수술만 받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자식들을 위로하는 환자의 목소리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안 죽어. 사랑하는 내 새끼들 다 클 때까지는 죽어도 못 죽어.” 엄마의 사랑 고백에 자녀들이 더 크게 울기 시작하자, 이제 환자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부둥켜안고 울고 있는 가족들 곁에서 이제는 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저 즐거운 이야기만 나누고 돌아갔을 걸 생각하니 아찔했다. 언제나 환하게 웃어 보이던 환자와 그 자녀들을 흐뭇하게 볼 줄만 알았지 큰 수술을 앞두고 원목 신부의 방문을 청하던 그들의 불안한 마음에 나는 아예 눈을 감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의례적으로라도 기도로 방문을 마치게 나를 이끄셨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정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이렇게 나의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 환자와 그 자녀들을 기도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셨다. 🍀



교구 소식

최대한 신부와 함께하는 인문학 피정

일시 2/1(토) 15시 ~ 2(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주제 성녀 에디트 슈타인과 함께 걷는 존재의 길

교재 에디트 슈타인, 『침묵 그리고 은총의 빛』, 가톨릭출판사

대상 누구나

문의 031-850-1446 선교사목국

신청 ▶



한마음 사계 피정 - 2월

일시 2/7(금) 16시 ~ 9(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주제 하느님 길을 걷다

강사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서울대교구)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 한마음 사계 피정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ucatholic.or.kr-교구소식 참조

제16기 의정부교구 도시농부학교

기간 3/15~10/18, 토요일 [월2회]

장소 박달산 텃밭 (파주시 광탄면)

회비 17만원 (실습발 분양비 포함)

인원 25명 (선착순)

접수 3/14(금)까지

문의 031-850-1492 생태환경위원회

동두천어린이밥집 포이마이노 직원 채용

모집 1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재임용 가능)

근무 주5일 (40시간)

업무 청소년대상 교육 및 돌봄, 각종 행사 지원

장소 어린이청소년밥집 포이마이노 (동두천시 생연동)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 0810369khk@gmail.com

문의 010-3946-9018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ucatholic.or.kr-모집 참조

의정부교구 제146차 ME 주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창세 2,18).

날짜 2/21(금)~23(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ME 주말분과 대표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5지구 영성피정

일시: 1/20(월) 13:40~16:30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

강사: 김영철 베드로 신부 (전국 및 교구 성령담당)

문의: 010-8917-0090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1/24(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온전한 은혜 (시편 147,3)

강사: 김창숙 크리스티나 (수원교구 말씀봉사자)

문의: 010-2127-0032

힐데가르트 영성학교 2기 - 입문

일시: 1/31(금) 15시 ~ 2/2(주일)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회비: 25만원 (접수 후 입금)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꽃동네 젊은이를 위한 성소 피정

일시: 2/8(토) 14시 ~ 9(주일) 15시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영성원

대상: 고2 ~ 만 35세

주제: 사랑에, 머물다

회비: 5만원 (1인 1실, 사전접수)

문의: 010-4830-2820

양주 올리베따노 수도원 2월 피정

1/31(금)~2/5(수): 예수기도 [5박6일]

2/8(토): 1일 피정 및 신심미사-평온함의 비결
(내말김의 영성)

2/26(수)~3/2(주일): 렉시오디비나 [4박5일]

장소: 양주 올리베따노 수도원

문의: 010-5230-2986

성모솔숲 무료 치유대(對)피정

날짜: 1/10(금)~12(주일), 2/7(금)~9(주일),

3/7(금)~9(주일), 4/11(금)~13(주일)

매월 둘째(금~주일) [2박3일]

주제: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문의: 010-3209-3955 [문자접수]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14(금)~22(토), 3/14(금)~22(토)

문의: 010-3340-0201 형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번 기도회

일시: 1/20(월) 12:30~17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 설 연휴로 1/28(화) 철야기도회는 없습니다.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2/28(금)~3/2(주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3/1(토)~2(주일)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제주 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한라산눈꽃산행: 2/8(토)~10(월),

2/14(금)~16(주일), 2/22(토)~24(월)

추자도포함: 3/1(토)~4(화),

3/9(주일)~12(수), 4/12(토)~15(화)

생태순례: 3/17(월)~19(수)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눈꽃산행: 2/7(금)~9(주일),

2/21(금)~23(주일), 2/25(화)~27(목)

자연순례: 3/1(토)~3(월), 3/8(토)~10(월)

추자도포함: 3/13(목)~16(주일)

접수: 064-796-4182, 02-773-1455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2/7(금)~10(월), 2/21(금)~24(월),

3/14(금)~17(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2025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날짜: 2/7(금)~9(주일)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대상: 건강한 고1 ~ 35세 미만 미혼 남성

접수: 1/31(금)까지

문의: 010-6221-3520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재속프란치스코회 의정부지구 지원자 모집

16세 이상의 성실한 가톨릭신자이며,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과 발자취를 따르고자 희망하는 분

접수: 2/28(금)까지

문의: 010-2369-4574 양성담당

010-3207-2525 지구봉사자

장례지도사(봉사자·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봉사자반(10주): 3/8~5/17, 매주(토) 09시~18시

자격증반(300시간): 3/8~11/1, 매주(토) 09시~18시

장소: 신앙교육원

인원: 봉사자 50명, 자격증반 30명

문의: 031-874-6272, http://cafe.daum.net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해밀 직원 모집

분야: 생활재활교사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인원: ○명 / 채용시까지

문의: 031-965-0028

※ 자세한 사항은 www.haemil.or.kr 참조

이주사목위원회 파주 EXODUS 직원 채용

분야: 영어권 이주민 관련 업무 (상담, 통역)

인원: 1명 / 접수: 2/13(목)까지

자격: 영어 사용, 영문서 작성, 운전면허 소지

문의: 031-948-8105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교구소식 참조

청년들을 위한 기도훈련 -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대상: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청년

일시: 2/11부터 매주(화) 10:30, 19:40 [6주간]

방법: 온라인 줌

접수: 2/6(목)까지

문의: 02-333-9898 한국CLC

이콘연구소 제23기 신입생 모집

이콘 제작 및 연구 (3년 과정)

실기: 2/22(토), 2/24(월) 10:30

개강: 3/4(화) / 대상: 만 65세 미만

장소: 가톨릭출판사 신관 6층 (중구 중림로27)

지도: 장궁선 예로니모 신부

문의: 02-313-9973

202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접수: 2/14(금)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 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살도록

돕는 프로그램

일정: 3/17(월)~26(수), 4/21(월)~30(수),

5/12(월)~21(수), 6/9(월)~18(수)

장소: 강원도 홍천 / 대상: 60세 이상

회비: 100만원 (10일) / 문의: 010-7451-9707

일산 시니어합창단(고양일산파주반) 창단단원 모집

일시: 매주(금) 19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연습실

대상: 55세 이상 누구나 (오디오 면제)

지휘: 이상희 모니카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분야: 마케터, 디자인(북·편집/웹·콘텐츠), 매장판매
서류: 입사지원서 (홈페이지-본사양식)

접수: cphhr@catholic.or.kr

문의: 02-6365-1829

※ 자세한 내용은 catholicbook.kr-직원모집 참조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피에타스 시니어 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대상: 성가대 경험있는 60세 이상 교우

연습: 매주(수) 20시,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이경원 베드로 지휘자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들>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 (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오남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일시: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천주교 신자로 성가대 지휘 유경험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학력, 일반경력 및
가톨릭음악 관련 활동 포함)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성가대 연습: 평일 및 주일

※ 소정의 수교료 지급 (채용시 마감)

새로나는 성경공부 밴드수업 학생 모집

과목: 모세오경

개강: 3/7(금) 10시~12시 [라이브, 11주간]

회비: 9만원 (교재 1권 포함)

문의: 02-944-0969

시스피나 일산 합창단 창단 모집

그레고리오 성가와 미사곡 연주(성가대원, 전공자현역)

모짜르트 미사곡 고양아람누리 창단연주회 예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 (화) 19시

문의: 010-9842-8818 이호중 교수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업무: 청소년활동 지도 (활동운영팀)

마감: 2/16(주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의정부교구 기사사도회 모집

내용: 교구청 행사, 교통 봉사 및 질서 유지

문의: 010-2762-9575 조성환 가브리엘 회장

원당 성당 관리직원 모집

인원: 관리직 1명

자격: 65세 미만 남성,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업무: 성당 제반시설 관리, 미화, 방호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 추천서,

교적 사본, 자격증 사본(소방 2급)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안내 · 기타 ▶▶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3/24(월) 이탈리아, 프랑스(11일, 동반자 할인, 500만원)

4/22(화), 5/13(화) 이탈리아 (11일, 동반자 할인, 415만원)

5/3(토) 체코, 폴란드, 발칸, 메주고리에 (15일, 575만원)

5/19(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1025만원)

5/20(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525만원)

6/5(목) 울트레아 로마 세계대회 참가단 (12일, 550만원)

문의: 010-3866-2533 가톨릭회관 619호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24(월)~27(목) 홍콩, 마카오 (150만원)

3/7(금)~18(화) 회원 이탈리아 (대한항공, 455만원)

3/11(화)~21(금)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4/1(화)~12(토) 산티아고 도보순례 (499만원)

4/5(토)~16(수) 회원 이탈리아 (독일항공, 435만원)

문의: 02-2281-9070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날짜: 4/24(목)~5/5(월)

장소: 성모발현지 (520만원)

문의: 010-7374-3217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3/30(주일) / 비용: 599만원 (+2,1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한티 가는 길 - 도보순례

일시: 3/1(토)~4(화), 3/10(월)~12(수),

5/22(목)~24(토), 6/19(목)~21(토)

[11시 입실, 17시 마침]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상센터

강사: 류 에프렘 수사

회비: 25만원 (2박3일)

문의: 010-6791-0071 (문자)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회원 특집 해외 성지순례

2/3(월)~14(금): 이집트 (EK항공)

2/12(수)~16(주일): 마카오 (KE항공)

2/26(수)~3/9(주일): 몰타, 시칠리아, 튀니지 (TK항공)

3/7(금)~18(화): 튀르키예, 그리스 (TK항공)

3/13(목)~24(월): 성모발현지 (KE항공)

3/20(목)~28(금): 스페인 산티아고

120km 도보순례 (KE항공)

문의: 1551-1053, www.cpbctour.co.kr

성베네딕도수도원 전례&성지순례

3/1(토)~4(화) 전주11~광주4

3/15(토)~18(화) 부산8~마산6

4/23(수)~27(주일) 울릉도~독도

출발: 명동 가톨릭회관 후문

동유럽: 5/2(금)~15(목) 체코-폴란드~메주고리에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10(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7(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14(금):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28(금):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4/8(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5만원)

5/6(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4/7(월) 베트남 다낭 (5일, 155만원, 아시아나)

4/21(월) 특선 이탈리아 (11일, 499만원, 대한항공)

4/21(월) 일본 나가사키 (139만원)

4/28(월) 유럽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495만원)

4/28(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39만원)

5/12(월) 산티아고 순례길과 포르투갈 (13일, 47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24(금)~26(주일) 14시	서울 보문동 수녀원	010-9353-1773 (미리연락)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수도 성소자 꿈나무 청소년·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5195-3217 성소부

희년의 표징들 (2) - 성문, 화해



희년을 드러내는 두 번째 요소는 성문(聖門)입니다. 성문은 희년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특별한 표지입니다. 지난주에 알아본 '순례'의 최종 목적은 예부터 성문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년은 교황님이 성문을 개방함으로써 시작합니다. 본래는 로마의 주교좌 성당인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당의 성문 하나뿐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더욱 많은 순례자가 희년을 체험하도록 다른 로마 대성당들도 성문을 개방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희년의 시작을 알리며 지난 12월 24일에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문이 열렸고, 이후 12월 29일에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당, 1월 1일에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 1월 5일에는

성 바오로 대성당의 성문이 열렸습니다.

성문의 문턱을 넘으면서 순례자들은 자연스레 요한 10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9절). 성문을 통과하는 것은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를 받겠다는 결심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성당의 문은 순례자를 성당 안으로 인도하는 통로이지요. 순례자는 성문을 통해 성당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화해와 평화를 맞볼 수 있습니다.

화해(Reconciliation)는 희년의 주요 주제입니다. 희년의 세 번째 요소인 화해는 처음부터 하느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의 소명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적, 구조적 죄와 모순으로 하느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상처 입었고, 이로써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과 부조리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희년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최우선에 두며 사회 정의를 회복하고 지구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먼저 자비의 얼굴로 다가와 주시며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화해의 성사를 받고, 이 놀라운 체험을 바탕으로 고해성사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하느님의 용서를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해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피조물인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고해성사는 뒤에서 알아볼 ‘대사’(大赦)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❷

